

## 오토마티즘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김 소 현 · 이 연 희\*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 특성을 분석하여 무의식적·우연적 효과의 창의적인 표현양식을 기반으로 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여 패션 이미지 전달의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오토마티즘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을 분석한 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였다. 첫째, 오토마티즘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조형예술 분야의 다양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을 도출한 후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살펴보았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9인의 패션디자인 전공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작품 사진을 검증하였다. 셋째, 실증적 연구의 범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의 작품들을 패션잡지, 작가홈페이지,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1129점을 1차 수집하였다. 넷째, 2차 과정에서는 작품선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오토마티즘과 관련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검증한 후 총 287점을 선별하였다. 이에 나타난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에 따른 분포 결과는 액션 페인팅의 즉흥성(28%), 콜라주의 환상성(27.7%), 자유벡터의 무의식성(27%), 데칼코마니의 다중성(9.6%), 앳상블라주의 공간성(4.7%), 프로타주의 우연성(3%)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오토마티즘의 6가지의 표현 특성을 반영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6점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오토마티즘의 무의식적 정신과 이에 따른 표현 특성이 반영된 실험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기초자료제공과 실험적이고 다양한 표현 기법 개발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 오토마티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무의식성, 즉흥성, 우연성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2015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교신저자: 이연희, [yiyhee@hanyang.ac.kr](mailto:yiyhee@hanyang.ac.kr)

접수일: 2018년 8월 13일, 수정논문접수일: 2018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19일

## I. 서론

예술은 인간 정신의 활동이며, 예술가들은 인간 내면의 심상과 의식을 담아 많은 이미지와 언어를 통해 외부 자극과 반응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의식적인 목적성을 가진 작품으로 표현된다. 특히 인간의 의식 이면에 있는 무의식에 대한 탐구는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억압되었던 욕망과 내적 충동 등이 예술 활동에 큰 근원이 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따르면 무의식이란 정신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충동과 생각 등이 암암리에 우리의 행동 또는 태도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Kahn, 2008). 이성이나 객관적인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무한한 자유와 욕망을 표출하는 자동기술법으로 불리는 ‘오토마티즘(automatism)’은 20세기 초현실주의 회화기법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는 모든 관습적 기법이나 심미적인 선입관, 이성에 의한 의식의 통제 없이 상상력의 한계를 끌어 올리며 무의식의 가운데서 잠재된 의식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오토마티즘과 관련된 선행연구(Choi, 2001; Park, 2013; Shin, 2015)는 회화, 조각, 텍스타일 등 미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fashion illustration) 분야에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의식적인 작가정신이 반영된 오토마티즘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활용하여 패션의 또 다른 예술적 표현방법으로 제안함으로써 독창적인 패션 이미지 전달의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오토마티즘은 의도된 통제나 선입견이 배제된 상태이므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부적합할 수도 있으나, 오토마티즘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방법론으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적 예술로서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연구방법은 오토마티즘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자료, 선행 연구 논문자료를 분석하여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을 도출한 후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오토마티즘 표현 기법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로는 2010년부터 2016까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국내외 작가홈페이지,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발표된 1129점 작품들 중 패션디자인 전공 전문가 집단 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오토마티즘과 관련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총 287점을 선정 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토마티즘 표현 특성에 따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6점을 제작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오토마티즘

#### 1) 오토마티즘의 개념

오토마티즘은 예술가들의 예술작품이 생성되는 정신분석적 측면의 핵심으로 프로이트에 의해 규명되었고, 특히 초현실주의 작가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창조적인 다양한 표현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정신세계에 관심을 갖고 ‘무의식의 작동원리’들이 작품을 창조하는 심리 활동구조에 대해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탐구는 20세기 정신분석학의 발달과 함께 ‘자동기술법’ 또는 ‘자유연상법’을 예술 창작에 적용한 오토마티즘으로 고안되었다. 이는 무의식적인 취급이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을 강조할 때 인간의 내면세계 즉 잠재의식, 환상, 꿈의 세계를 그대로 외부에 드러내는 우연의 효과를 가리키는 조형적 언어로 사용되었다(Kim, 2009). 초현실주의가 정신분석에서 차용한 대표적인 기법은 ‘자동기술법’과 ‘데페이즈망(dépayement)’이 있다. 오토마티즘, 즉

자동기술법의 중요성은 실제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상징적인 것으로 기술자에게 창조성이 무의식의 가장 깊은 차원, 즉 꿈과 환상을 자양분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이성적 사고를 배제할 필요성을 의미한다(Leroy, 2004/2008). 이러한 무의식의 활성화와 의식과 무의식이 공명하는 세계를 조화롭게 나타난 시점이 바로 초현실주의이며, 오토마티즘의 발전과 다양한 표현방법이 개발됨에 있어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에 대한 심층해석 경험과 작품 활동에 대한 표현적 자유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오토마티즘은 문학과 철학, 정신분석이나 예술전반에 있어서 의식의 영역을 넓히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어 어떠한 이성의 통제나 사고에 구속 없이 인간의 잠재의식 세계를 표출하기 위한 가장 순수한 인간정신의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오토마티즘의 배경 및 전개

1차 세계대전 후 취리히(Zurich), 쾰른(Cologne), 뉴욕(New York) 등지에서 동시에 발생했던 다다이즘(Dadaism)은 초현실주의의 전조이자 미술운동으로 당대 기성예술과 상반된 비합리성, 반도덕을 찬미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미술개념으로 변모해갔다. 이는 기존의 미술을 파괴하는 다양한 양식들을 시도하며 ‘다다이즘’을 특징짓는 우연성, 즉흥성과 같은 형태들로 표출되어 콜라주(collage), 앗상블라주(assemblage), 프로타주(frottage),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 테페이즈망, 자동 기술법등을 선보였다(Lee, 2016). 그 중 대표적인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보여준 한스 아르프(Hans Arp)는 자연의 우연적 원리에 사로잡혀 추상형태의 작업에 선보였다(Lee, 2016).

초현실주의는 다다가 남긴 혁명운동에서 그 주체성을 간직하고 긍정적인 행동의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초현실주의 사상에 있어 오토마티즘은 우리가 무의식적인 정신을 통해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

드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이상하고 비이성적인 것들을 다루었다(Strickland, 1992/2000). 1925년 막스 에른스트(Max Ernst)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인 프로타주(Frottage)를 발견하였고(Leroy, 2004/2008), 앙드레 마송(Andre Masson)의 회화는 마치 화가의 의식적인 통제없이 브르통이 ‘자유렛생’이라고 정의한 선으로 만들어진 인물과 대상을 담고 있는 서로 뒤섞인 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오스카 도밍게스(Oscar Dominguez)에 의해 최초로 발명된 데칼코마니(décalcomanie)는 평평한 표면에 물감을 펴 바르고, 종이나 캔버스 조각을 그 위에 올려 누른 다음, 둘을 떼어내는 일종의 인쇄기법을 고안해냈다(Leroy, 2004/2008). 이처럼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은 작가의 무의식적 본능을 표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기법을 채택하여 순수한 예술적 정신세계를 선보였다.

추상표현주의는 1929년 유럽미술의 거장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미국 전시회에서 미국의 평론가인 알프레드 바(Alfred Barr)가 ‘형식은 추상적이지만 내용은 표현적’이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고(Kim, 2000), 1929년의 사회적, 정신적 불안요인과 함께 미국미술의 주된 양식들로 사회적 사실주의와 지방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Park, 1991). 추상표현주의는 대공황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내면의 아픔을 인간성 회복과 무의식세계를 예술로서 승화하고자 추상미술을 발전시켰다. 추상표현주의에 있어서 오토마티즘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행위적 오토마티즘을 통해 순수성을 획득하며 뉴욕을 근거지로 삼았던 중간 세대 작가들 사이로 퍼져 나갔고,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마크 로스코(Mark Rothko), 바넷 뉴먼(Barnett Newman), 아실 고르키(Arshile Gorky), 윌런 드 쿠닝(Willem de Kooning) 등은 후에 추상표현주의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Gooding, 2001/2003). 대표적인 추상표현주의 기법으로는 폴록의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과 색면

추상(color-field painting)이 있다. 특히 폴록의 작품은 바닥에 화폭을 펼쳐 놓고 그 위로 물감을 떨어뜨려 자국을 남기는 기법이며, 오토마티즘의 이름으로 자의식적 태도로부터의 심상과 과정을 모두 자유롭게 하는 수단으로서 우연성의 영향을 가능케 하였다.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다다에서 초현실주의의 전 시대의 예술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고, 에너지와 액션, 자유롭고 리듬감 있는 동적인 행위를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즉흥적인 오토마티즘의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를 거치면서 오토마티즘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법들은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고안되었고, 인간 내면의 순수한 무의식에 집중한 자유넷생, 액션페인팅, 콜라주, 앳상블라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1).

### 3) 오토마티즘의 기법 및 표현 특성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측면으로 규명된 ‘무의식의 작동원리’는 오토마티즘으로 발전되어 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조적인 표현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면서 예술 분야 전반에 다양

한 양상으로 표현되었다. 조형예술과 시문학 분야에서 시작한 다다운동은 기성적 가치관에 반기를 든 젊은 예술가들이 무의식의 숨겨진 내면의 의도를 새로운 방법의 순수한 창작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우연적 효과’를 주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브로통은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기술인 오토마티즘 기법을 그들이 추구한 미적 이상 ‘경이로운 것 (lemerveilleux)’과 동일시했으며, 앙드레 마송은 자동필기를 일종의 추상서체에 적용했는데 자유로운 선의 예술세계를 철저히 무의식 상태에서의 행위의 결과물로 자유넷생을 선보였다(Figure 1). 자유넷생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선들로 표현된 작가의 강렬한 내면적 욕망을 표현하는 오토마티즘의 한 표현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내제된 특성으로는 무의식성, 즉흥성, 우연성, 충동성, 격정성, 속도성을 나타낸다.

액션 페인팅 <Figure 2>는 비평가 해롤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가 폴록의 창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로 튀기기, 물감 흘리기 등 복잡하게 엉킨 그물과 같은 작품을 실험하기 시작했으며, 소위 ‘쏟아 붓기’ 회화가 나타났다(Amason, 1991). 즉, 자유데생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몸짓에 따른 서체적인 물감의 흔적들은 그의 손과 무의식

Table 1. 오토마티즘의 형성배경 및 표현 기법.

시대	구분	발생 배경	대표 작가	표현 기법
다다이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세계대전: 정서적인 불안감</li> <li>- 다다: 취리히, 쾰른, 뉴욕 동시발생</li> <li>- 1916년 후고발 ‘다다 선언문’</li> <li>- 젊은 예술가들이 반예술적 행위</li> </ul>	한스 아르프	콜라주
			라울 하우스만	
			막스 에른스트	앳상블라주 프로타주
초현실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4년 앙드레 브르통</li> <li>- 오토마티즘: 초현실주의 예술기법</li> <li>-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적극지지</li> </ul>	조르조 데 키리코	데칼코마니
			르네 마그리트	
			오스카 도밍게스	
추상표현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9년 알프레드 바가 유래</li> <li>- 1929년 경제 침체, 제2차 세계대전 사회적, 정신적 불안요인</li> <li>- 무의식 세계 예술로 승화, 인간성 회복</li> </ul>	호안 미로	자유넷생
			앙드레 마송	
			잭슨 폴록	액션페인팅
			마크 로스코	
			아실 고르키	



Figure 1. 앙드레 마송의 자유덧셈, 1925/1926.  
From Gooding. (2001/2003). p.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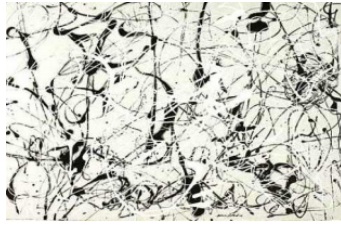


Figure 2. 잭슨폴록의 액션페인팅, 1948.  
From Bradley. (1997/2003). p. 50.



Figure 3. 한스 아르프의 콜라주, 1917.  
From Art is Arp. (n.d.).  
<https://www.tretyakovgallerymagazine.com>



Figure 4. 막스 에른스트의  
앗상블라주, 1924.  
From Ernst et al. (2008). 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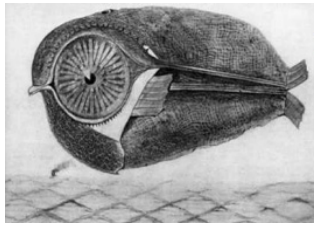


Figure 5. 막스 에른스트의  
프로타주, 1926.  
From Lim. (2013). p. 38.



Figure 6. 막스 에른스트의  
데칼코마니, 1940.  
From Lee. (2016). p. 609.

세계를 연결시키면서 환상적인 내면세계의 형태들을 암시한다. 이처럼 액션 페인팅은 자유덧셈에서 영감을 받은 표현양식으로 작가의 의도하지 않은 삶의 흔적과 물감의 흔적이 일체화된 ‘붓질’, ‘얼룩’을 의미하는 독특한 추상표현적인 오토마티즘 기법으로 표현되었다(Gooding, 2001/2003).

아르프는 그가 덧셈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조각조각 찢어서 방바닥에 떨어트렸는데, 그때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이 우연히도 재미있는 구도여서 이 종이 조각들을 바닥에 흩어진 상태 그대로 다른 바탕위에 옮겨 붙인 것이 콜라주이다(Shin, 2015). 콜라주 <Figure 3>에 나타난 오토마티즘 특징은 초현실주의 이후 현대미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표현방법으로 우연성 자체를 예술적 근원으로 전제하여 자유로운 사고가 허용되는 상상력의 원천으로 다양한 입체적인 부조물을 통해 엉뚱한 물체를 결합하여 독특한 표현기법을 나타냈다.

에른스트는 그림 위에 실제 판자와 나무조각을 덧붙이고 그 위에 용화물감으로 채색하여 미술작

품에 실제 사물을 부착하는 앗상블라주 기법을 차용하였다(Figure 4). 이는 장 뒤뷔페(Jean Dubuffet)가 자신의 작품을 피카소와 브라크의 콜라주에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집합’, ‘조립’등의 뜻을 가진 평면적인 회화에 삼차원적인 오브제를 부착하는 기법이다(Smith, 1977). 다다이즘의 우연성에서 발견된 오토마티즘 콜라주 기법은 아르프를 통해 평면적 표현에서 입체적인 표현방식으로 범주를 넓히는 근원이 되었고, 초현실주의자들에 의해 새로운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응용되었다.

프로타주 기법 <Figure 5>는 객관적인 사물의 개체화를 새로운 미적시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1926년 최초의 프로타주 화집으로 출간한 ‘박물지’는 34매의 우주 창조적 작품과 식물에 관한 것, 동물에 관한 것, 의인화한 것, 인간적, 정신적인 작품으로 환각적인 체험의 세계를 보여준다(Hong, 1999). 이처럼 오토마티즘의 프로타주 기법은 문지르는 행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도출된 대상의 조형성을 응용한 수법으로 의식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적인 효과를 적용시켰으며, 초현실주의에 와서 무의식 세계의 상상력을 환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다.

오토마티즘 기법에 있어 데칼코마니는 ‘전사술’ 또는 ‘전사화’이란 뜻으로 우연성과 자동성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이며, 종이에다 물감을 듬뿍 묻히고 거기에다 다시 종이 같은 것을 닿게 하여 우연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은 1935년 초현주의 화가 오스카 도밍게즈(Oscar Dominguez)가 과슈(gouache)로 제작한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는 물감과 종이 자체에서 빚어지는 우연한 구성에서 이 방법을 발견하여 이것을 역으로 작품으로 시도하였다(Hong, 1999). 데칼코마니 <Figure 6>은 원시적인 자연과 식물의 유기적인 형태에 데칼코마니 기법을 차용함으로써 환상적인 미술형태의 변용을 실험한 것으로 신비한 풍경, 미묘한 식물들의 모습에 연관되어 있으며 초현실세계의 신비한 자연을 묘사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Park, 2008). 이처럼 오토마티즘의 데칼코마니 기법은 앞서 언급한 콜라주, 프로타주, 그라타주와 같이 우연성을 탐구함으로써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초현실주의를 대표하

는 표현기법 중 신비한 자연을 묘사하는 초현실 세계의 형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연적, 자연적, 환상적, 원시적인 오토마티즘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오토마티즘의 표현 기법과 함께 회화, 조각, 텍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선행연구(Choi, 2000; Park, 2013; Shin, 2015)를 바탕으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을 6가지로 도출하였다(Table 2).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 주의적 요소를 갖는 드로잉인 낙서, 무의식의 자국 등은 ‘자유텍생의 무의식성’으로, 추상표현주의에 있어서 행위적 오토마티즘을 통해 즉흥과 우연의 효과를 통하여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뿌리고, 흘리는 제작 방식의 액션페인팅과 타지즘, 앵포르멜 등의 표현 기법을 ‘액션페인팅의 즉흥성’으로 설정하였다. 다다이즘의 창조적인 정신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이미지와 의미를 혼합하여 새롭고, 복잡한 의미의 결과물의 콜라주 기법을 ‘콜라주의 환상성’으로, 삼차원적인 오브제를 부착하는 앳상블라주 기법은 ‘앳상블라주의 공간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합리한 방법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의 프로타주, 그라타주, 텍스처(문지르기) 등

Table 2. 오토마티즘의 기법 및 표현 특성.

기법	표현 방법	내적 의미	표현 특성
자유텍생	- 자동필기를 추상서체에 적용, 즉흥적 드로잉 - 주관적인 무의식상태에서 자유로운 선, - 작가의 강렬한 내면의 욕망, 충동적 표현	무의식성 충동성 속도감	⇒ 자유텍생의 무의식성
액션 페인팅	- 화폭에 격렬하게 액션이 가는데로 물감 흘뿌림 - 즉흥적인 충동에 따른 본능에 의한 페인팅 기법	즉흥성 직관성 충동성	⇒ 액션페인팅의 즉흥성
콜라주	- 바닥에 버린 조각들에서 시작 - 우연성과 레디메이드(신문)을 결합	우연성 환상성 상징성	⇒ 콜라주의 환상성
앳상 블라주	- ‘집합’, ‘조립’ 등의 뜻을 가진 평면적인 회화에 삼차원적인 오브제	이중성 입체성 공간성	⇒ 앳상블라주의 공간성
프로타주	- 문지르는 기법 - 프로타주를 유화에 바꾸어 그라타주 기법 고안	우연성 객관성 인위성	⇒ 프로타주의 우연성
데칼 코마니	- ‘전사술’이란 뜻으로 다중성과 자동성을 표현 - 상하 또는 좌우 대칭의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기법	다중성 환상성	⇒ 데칼코마니의 다중성

의 유사한 표현 방법으로 판단되는 유형을 ‘프로타주의 우연성’으로, 마지막으로 상하 또는 좌우대칭의 형태가 나타나는 우연성을 주목한 표현 기법의 데칼코마니는 ‘데칼코마니의 다중성’으로 분류하였다. 다음과 같이 도출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은 오토마티즘 표현에 의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한 실증적 연구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 Ⅲ.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

####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 및 경향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은 삽화나 장면의 의미로 풀이되거나 대중 매체를 통하여 복제·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나, 넓은 개념으로는 회화를 비롯한 서적, 신문, 광고, 도형, 도표 등 시각화된 모든 것을 나타낸다(Min, 2003). 20세기 초 많은 예술 사조들이 복식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며 잡지의 성장과 함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도 황금기를 맞았다. 1950년대에는 영상매체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림은 점차 소외되었지만 여전히 낭만적인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이 지속되었고(Min, 2003), 1980년대 이후에는 점차 추상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테크닉의 발달로 그래픽 프로그램의 대중적인 보급과 함께 모든 장르의 요소들을 차용함으로써 핸드 드로잉, 판화, 사진, 그래픽, 등 오토마티즘적인 표현기법이 다양화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경향은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보다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두드러진 외적인 특성과 더불어 전문 패션일러스트레이터로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21세

기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작가의 내재적인 의미를 반영한 우연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현 시대의 모습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패션 매체이자 조형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 2.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로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전공 전문가 집단 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최근 발표된 2010년~2016년의 자료를 중심으로 패션잡지, 작가 홈페이지,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발표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 중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과 관련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1129점을 1차로 수집하였다.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차에 선별된 작품들 중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제외하였다. 2차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사진 선택 관련 기준을 알려준 뒤 총 6개의 항목(자유렛생의 무의식성, 액션페인팅의 즉흥성, 콜라주의 환상성, 앳상블라주의 공간성, 프로타주의 우연성, 데칼코마니의 다중성)으로 분류된 오토마티즘이 반영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사진을 제시하고 한 사진당 표현 특성을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하게 하였다. 설문결과로 전문가 집단의 선택을 받은 사진은 총 287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표현 특성의 분포는 액션페인팅의 즉흥성(28%), 콜라주의 환상성(27.7%), 자유렛생의 무의식성(27%), 데칼코마니의 자유성(9.6%), 앳상블라주의 공간성(4.7%), 프로타주의 우연성(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Table 3.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 표현 특성의 출현빈도 및 백분율.

표현 특성	출현 빈도(개수)	백분율(%)
액션페인팅의 즉흥성	82	28.0
콜라주의 환상성	80	27.7
자유넷생의 무의식성	73	27.0
데칼코마니의 다중성	28	9.6
앙상블라주의 공간성	14	4.7
프로타주의 우연성	10	3.0
합 계	287	100

나타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의 출현빈도 및 백분율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ure 7>과 같다.

### 1) 자유넷생의 무의식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자유넷생의 무의식성은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자동 주의적 요소를 갖는 드로잉이다. 이는 ‘자유넷생’ 및 ‘낙서’와 같이 오토마티즘의 기본 개념으로 내면에 있는 자신의 무의식과 자유로운 감각을 빠른 속도로 펜을 따라 자유롭게 그리거나 써가는 형태의 표현이다. 자유넷생의 무의식성은 자유롭고 율동적인 선의 느낌 또는 거친 붓의 흔적을 주는 기법을 통해 날카롭고,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인체 표현 또한 사실적이고 분명한 인체보다는 생략되거나 변형 및 왜곡된 형태로 비현실적인 인체가 특징적으로 보였다. 이에 내재된 특성으로 즉흥성과 충동성, 걱정적, 우연적, 속도감을 나타낸다. 토비 기디오(Tobie Giddio)의 작품은 아무런 의식없이 그린 듯한 빠르고 역동적인 선의 흐름과 선의 번지는 기법을 혼합하여 바람에 날리는 여인의 뒷모습을 표현하였다(Figure 8).

### 2) 액션페인팅의 즉흥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액션페인팅의 즉흥성은 캔버스를 펼쳐놓고 격렬한 액션이 가는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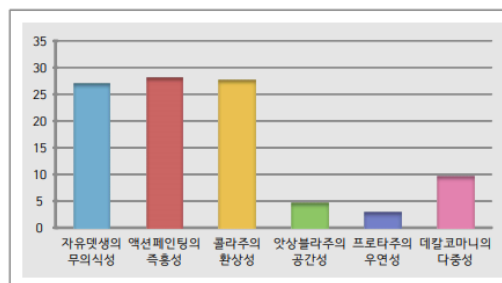


Figure 7.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 표현 특성의 출현빈도 및 백분율.

표현하는 형태로 물감의 번짐, 물감의 흘뿌림, 잉크의 번짐 등 수채화 기법이 특징적이다. 또한 인체의 표현은 무의식적 표현과 비슷한 양상으로 사실적이고 분명한 인체보다는 생략되거나 변형 및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에 내재된 특성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제스처가 돋보이는 즉흥성과 충동성, 환상성, 추상성 등을 나타낸다. 프랑수아 베르투(Berthoud François)의 작품은 리놀륨 인각과 목판을 사용하여 찍어내는 형태의 에나멜 드립(enamel drip)기법을 사용하여 페인팅을 흘리고 부어 그림으로써,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 그만의 독자적인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Figure 9).

### 3) 콜라주의 환상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콜라주의 환상성은 즉흥적인 예술행위로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표현 양식을 가지며, 다양한 기법을 혼합함으로써 다양한 불거리와 화려한 색감, 환상적인 느낌의 배경 처리가 특징적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 사물의 표현을 실사와 같이 매우 사실적이거나 변형 및 왜곡된 형태로 합성한 것으로 포토샵을 이용한 다수의 작품들이 선보여졌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미지의 작품에서 보이는 내재된 특성으로는 혼합성, 상징성, 이중성, 환상성 등을 나타낸다. 린 올로프스도터(Linn Olofsdotter)는 인체 중 얼굴을 확대·변형한 작품으로 전구, 목걸이, 눈, 나뭇잎 등 전혀



연관되지 않은 오브제들을 여기저기 배치한 콜라주 형식으로 오토마티즘의 혼재된 양식을 표현하였다(Figure 10).

#### 4) 앳상블라주의 공간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앳상블라주의 공간성은 데페이즈망 기법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성으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표상을 평면적인 회화에 삼차원적인 오브제를 부착하는 앳상블라주 기법이다. 이는 회화와 이념상에 발현되는 집합과 조립 등이 나타내는 표현 특성을 말한다. 이에 내제된 특성으로는 혼합성, 입체성, 공간성, 다중성, 우연성, 의외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 사빈느 파이퍼(Sabine Pieper)는 패브릭과 일러스트레이션을 혼합한 작업을 주로 선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오브제의 사용, 수채기법과 펜드로잉 등 다양한 기법으로 다중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Delicate Shades, 2011』 작품에서는 섬세한 핸드 드로잉 위에 화려한 프린트의 풍성한

러플을 덧붙여 입체적인 감각을 자아냄과 동시에 눈속임이 될 수도 있는 다중적인 이미지가 표현되었다(Figure 11).

#### 5) 프로타주의 우연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프로타주의 우연성은 오토마티즘의 우연적인 효과를 근원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합리한 방법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프로타주’, ‘그라타주’, ‘텍스처(문지르기)’ 등의 유사한 표현 방법으로 판단되는 유형을 말한다. 우연적 효과는 울퉁불퉁한 오브제에 종이나 천을 대고 문질러서 나오는 효과로서 반 오토마티즘적인 성격을 띠며, 작가의 의식적인 접근보다는 객관성을 가지며, 색을 겹겹이 칠한 후 긁어내는 기법도 우연적 효과에 포함시킨다. 이처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프로타주의 우연성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프로타주, 그라타주, 텍스처(문지르기) 등의 유사한 표현 방법으로 반 오토마티즘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에 내



Figure 8. 『The First NYFW s/s 14 Artwork』.  
From SHOWstudio. (n.d.).  
<http://www.tobiegiddio.com>



Figure 9. 『NY Girl Yellow』.  
From No Title. (n.d.).  
<http://www.francoisberthoud.com>



Figure 10. 『Art Basil』.  
From Bon Magazine "Art Basil". (n.d.).  
<https://linn.olofsdotter.com>



Figure 11. 『Visco Delicate Shades campaign』.  
From Visco Delicate Shades campaign, 2011.  
(n.d.).  
<http://sabinepiep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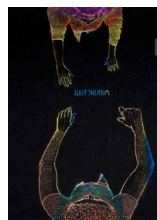


Figure 12. 『No title』.  
From Grungy illustrations by Norma Nardi.  
(n.d.).  
<https://www.lostateminator.com>



Figure 13. 『Scarf』.  
From Laura Laine. (n.d.).  
<http://lauralaine.net>

제된 특성으로는 우연성, 환상성, 자연성, 객관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 노마 나디(Norma Nardi)의 작품은 크레용으로 각양각색의 색상을 칠해놓은 후 블랙컬러를 그 위에 덧칠하고 칼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긁어내는 형식으로 바닥에 먼저 칠해 놓은 색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그라타주 기법을 응용하였다(Figure 12).

#### 6) 데칼코마니의 다중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데칼코마니의 다중성은 상하 또는 좌우 대칭의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표현 기법이다. 회화적인 방식으로의 데칼코마니는 작가도 예측이 불가능한 우연성에 주목한 기법이기도 하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포토샵을 응용하여 사방을 전사함으로써 쌍둥이,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강조와 착시현상을 형성함으로써 환상적인 감각을 자아낸다. 이에 내재된 특성으로는 우연성, 환상성, 다중성, 혼합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 로라 레인(Laura Laine)의 작품을 보면 전체적인 첫 이미지의 형상은 해

골이지만 자세히 보면 두 여인이 대칭되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있다. 대칭적인 데칼코마니 기법과 함께 뒤엉켜 있는 머리카락으로 인해 두 여인이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는 착시적인 효과가 표현되었다(Figure 13).

이처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의 유형에 따른 표현 특성 및 빈도율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 IV. 오토마티즘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제작

### 1. 작품 기획 및 방법

본 연구는 ‘무의식의 표현’이라는 예술적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 오토마티즘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방법론으로 접근함으로써 독창적인 표현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한 오토마티즘의 6가지 표현 특성을 바탕으로 6점의

Table 4.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

특 성	표현 기법	비율(%)
액션페인팅의 즉흥성	- 물감 흘리기, 쏟아 붓기, 뿌리기, 번지기 - 에나멜 드립기법 - 인체의 생략 및 변형, 왜곡된 형태	28.0
콜라주의 환상성	-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표현 - 인체와 사물의 왜곡과 변형 - 포토몽타주기법(포토샵을 이용한 작품다수)	27.7
자유젓생의 무의식성	- 자유롭고 율동적인 선의 느낌 - 거친 붓터치의 흔적(강한 힘이 느껴짐) - 인체의 생략 및 변형, 왜곡된 형태	27.0
데칼코마니의 다중성	- 포토샵을 응용한 작품 다수 - 인물의 강조와 착시현상 형성 - 다양한 표현기법과 혼용	9.6
앙상블라주의 공간성	- 삼차원적인 오브제를 부착 - 다양한 표현기법과 혼용 - 이질적 소재의 혼합과 비슷한 형태	4.7
프로타주의 우연성	- 그라타주와 유사한 표현 방법	3.0
합계 (총 287)		100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였다. 작품 기획에 있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도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면적인 캔버스나 종이에 작업하지 않고 옷 위에 그리거나 붙이는 다양한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자유로운 오토마티즘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베이직한 롱 셔츠의 슬리브와 커프스를 뜯고, 재배치한 해체주의적인 디자인을 캔버스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오토마티즘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은 자유텍생의 무의식성, 액션페인팅의 즉흥성, 콜라주의 환상성, 앳상블라주의 공간성, 프

로타주의 우연성, 데칼코마니의 다중성 등 총 6점으로 실물 제작하였으며, 작품 제작 구성은 <Table 5>와 같다.

## 2. 작품 및 해설

### 1) 작품 I- 자유텍생의 무의식성

밝은 색 크레용을 메인으로 사용하여 블랙 옥스퍼드 위에 춤추는 여인의 나체를 드로잉하였다 (Figure 14). 빠른 속도로 앉아있는 여인의 누드를 크레용으로 먼저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두터운 질감과 좀 더 강한 색감을 겹쳐 표현하였

Table 5. 오토마티즘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제작.

특성	자유텍생의 무의식성	액션페인팅의 즉흥성	콜라주의 환상성
작품 사진			
	Figure 14. 작품 I.	Figure 15. 작품 II.	Figure 16. 작품 III.
재료	옥스퍼드 30수/ 70 x 80 cm/ 아크릴 물감	옥스퍼드 30수/ 70 x 150 cm/ 아크릴 물감	옥스퍼드 30수/ 70 x 150 cm/ 잡지, 테이프, 크레용,
특성	앳상블라주의 공간성	프로타주의 우연성	데칼코마니의 다중성
작품 사진			
	Figure 17. 작품 IV.	Figure 18. 작품 V.	Figure 19. 작품 VI.
재료	옥스퍼드 30수/ 70 x 80 cm/ 아크릴 물감, 털실, 케이블타이, 공업용 호수	면 30수/ 70 x 150 cm/ 아크릴	옥스퍼드 30수/ 70 x 100 cm/ 아크릴 물감

다. 자유텍생은 무의식의 한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객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즉흥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드로잉을 표현하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작업이 이루어졌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체의 부드러움과 율동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컬러는 레몬 옐로우(lemon yellow)와 에메랄드 그린(emerald green), 화이트(white)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톤을 밝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 2) 작품 II- 액션페인팅의 즉흥성

액션 페인팅의 표현 기법은 물감 흘리기를 이용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Figure 15). 블랙 셔츠는 해체와 변형을 통해 슬리브를 잘라서 위치를 옮기고 시접부분은 올 폴림을 하거나 불의 그을림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물감을 흘뿌리는 기법과 떨어뜨리기, 물감을 부어버리는 드리핑(dripping)을 사용하였다. 우연적인 효과들과 함께 움직임에 해방감을 줌으로써 고정된 사고로부터의 자유로움을 표현하였다. 컬러는 옐로 딥(yellow deep)과 옐로 오키(yellow ochre), 올리브 그린(olive green)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여인과 구두 이미지에 무게감을 주었고, 물감을 흘뿌리며 색 톤의 변화를 주었다.

## 3) 작품 III- 콜라주의 환상성

20세기 초 콜라주가 회화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종이를 찢어 붙이는 방법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다원화와 독창성을 추구하면서 종이 이외의 이질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붙이거나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본 작품은 색종이와 잡지를 마음대로 찢어서 붙이고, 옆에 놓인 청 테이프를 발견하고는 가로로 한번, 사선 방향으로 엇갈려 붙였다. 이질적이고 상이한 요소들이 한 화면에 집합하여 물감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사실감과 조화로우미 표현되었다. 낯선 소재에서 오는 모순은 일어나지 않았고 억압된 잠재의식이 이질적인 재

료들의 융합 속에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환상적으로 나타났다(Figure 16).

## 4) 작품 IV- 앳상블라주의 공간성

재료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 앳상블라주는 여러 재료의 결합으로 입체적인 공간성이 특징적이다. 재료는 원형 스티로폼과 털실, 옷핀, 블랙 케이블 타이, 공업용 호수 등을 사용하여 옷에 자유롭게 부착하였다. 스티로폼과 공업용 호수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면서 공간을 형성하고, 케이블 타이의 플라스틱 질감과 징의 메탈 질감, 털실 등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입체적인 공간성을 표현하였다(Figure 17). 콜라주와 차별되는 점은 입체적으로 공간성을 가지면서 훨씬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믹스 매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가장 트렌디한 오토마티즘적인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 5) 작품 V- 프로타주의 우연성

프로타주의 표현 기법으로 어떠한 물체나 사물 표면을 베끼면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오토마티즘에서는 우연적이고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내면의 심상으로 여겼다. 낡고 부서진 나무를 발견하고 갈라진 나뭇결을 고스란히 옷에 담아보기로 했다. 나무 계단의 거친 모습은 비처럼 선을 그리며 크레용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큰 바위와 작은 돌 표면도 같이 문지르며 천 아래에 있는 오브제들이 밖으로 여과없이 표출됨을 연출하였다(Figure 18).

## 6) 작품 VI- 데칼코마니의 다중성

데칼코마니의 다중성은 좌우대칭의 전사법을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물감을 한쪽 면만 칠하여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압착시켜,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하고 다중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였다. 이 기법은 하나의 형상이 있었을 때

와는 달리 쌍둥이와 같이 똑같은 형상이 마주함에 따라 겹쳐진 이미지의 혼합성과 여백의 공간감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연상되는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한다(Figure 19).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이 두 여인은 코가 서로 맞닿아 마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멀리서 보았을 때는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다중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 V. 결 론

이성이나 객관적인 현실을 부정하면서 내면의 무한한 자유와 욕망을 표출하는 자동기술법으로 불려지는 ‘오토마티즘’은 20세기 초현실주의 회화 기법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는 의식의 통제 없이 상상력의 한계를 끌어 올리며 무의식 가운데 잠재된 의식을 나타내는 예술양식의 한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여 무의식적인 효과를 통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여 보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기법개발과 함께 새로운 패션 이미지 전달의 가능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문헌연구와 선행논문을 통해 도출한 오토마티즘의 6가지 표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자유텍생 및 낙서, 자동 텍생과 같이 동일한 의미와 표현기법을 통칭하여 ‘자유텍생의 무의식성’으로, 캔버스를 펼쳐놓고 격렬한 액션이 가는대로 표현하는 형태물감의 번짐, 흠뻑림, 잉크의 번짐 등의 표현기법을 통칭하여 ‘액션페인팅의 즉흥성’으로 제시하였다. 다양한 기법을 혼합하여 환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콜라주는 ‘콜라주의 환상성’으로, 평면적인 회화에 삼차원적인 오브제를 부착하는 앳상블라주 기법은 ‘앳상블라주의 공간성’으로, 프로타주, 그라타주, 텍스처(문지르기) 등의

우연적 효과의 유사한 표현 기법은 ‘프로타주의 우연성’으로, 데칼코마니의 상하좌우 대칭의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표현 기법은 ‘데칼코마니의 다중성’으로 제시하였다.

실증적 연구의 결과로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의 분포는 액션페인팅의 즉흥성(28%), 콜라주의 환상성(27.7%), 자유텍생의 무의식성(27%), 데칼코마니의 다중성(9.6%), 앳상블라주의 공간성(4.7%), 프로타주의 우연성(3%)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유텍생의 무의식성은 자유롭고 율동적인 선의 느낌 또는 거친 붓의 흔적을 주는 기법을 통해 날카롭고, 강한 힘이 표현되며, 즉흥성과 충동성, 걱정적, 우연적, 속도감을 나타낸다.

둘째, 액션페인팅의 즉흥성은 캔버스를 펼쳐놓고 격렬한 액션이 가는대로 표현하는 형태로 물감의 번짐, 물감의 흠뻑림, 잉크의 번짐 등 수채화 기법이 특징적으로 즉흥성과 충동성, 환상성, 추상성 등을 나타낸다.

셋째, 콜라주의 환상성은 즉흥적인 예술행위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표현 양식을 가지며, 다양한 기법을 혼합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와 화려한 색감, 환상적인 느낌의 배경처리가 특징적이며 혼합성, 상징성, 이중성, 환상성, 비현실성을 나타낸다.

넷째, 앳상블라주의 공간성은 캔버스 위 2차원의 화면구도에 3차원적인 입체감을 부여함으로써 이질적 소재의 혼합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입체적인 공간성이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이며, 혼합성, 입체성, 공간성, 다중성, 우연성, 의외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

다섯째, 프로타주의 우연성은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라타주 기법이 주를 이루며, 프로타주의 표현은 최근 작품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에 내제된 특성으로는 우연성, 환상성, 자연성, 객관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

여섯째, 데칼코마니의 다중성은 포토샵을 응용

하여 사방을 전사함으로써 쌍둥이,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강조와 착시현상을 형성하고 환상적인 감각을 자아내는 작품으로 우연성, 환상성, 다중성, 혼합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회화와 순수미술에서만 주로 적용되어 온 오토마티즘의 표현 특성을 유형별로 사례들을 분석하여, 독창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오토마티즘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회화적 응용 단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실험정신으로 표현기법의 창작 범위가 확장되어 다양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가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 Amason, H. H. (1991). *현대미술의 역사 2* [History of modern art 2] (Lee, Y. C., Trans.). Seoul: International art design.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 Art is Arp. (n.d.). *THE Tretyakov Gallery Magazine*. Retrieved August 3, 2016, from <https://www.tretyakovgallerymagazine.com/articles/switzerland%E2%80%93a-crossroads-cultures/art-arp>
- Bon Magazine “Art Basil”. (n.d.). *Olofsdotter*. Retrieved August 20, 2016, from <https://linn.olofsdotter.com/Bon-Magazine-Art-Basil>
- Bradley, F. (2003). *초현실주의: 현대미술운동총서* [Surrealism: Movement in modern art] (Kim, G. M., Trans.). Paju: Youlhwad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Choi, S. Y. (2001). *The study of automatism in contemporary art: Based on surrealism and abstract expressio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 Ernst, M., Derenthal, L., & Drost, J. (2008). *Max Ernst: Dream and revolution*. Berlin: Hatje Cantz Publishers.
- Gooding, M. (2003). *추상미술: 현대미술운동총서* [Abstract art: Movement in modern art] (Jung, M. J., Trans.). Paju: Youlhwada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 Grungy illustrations by Norma Nardi. (n.d.). *LOST AT E MINOR*. Retrieved August 20, 2016, <https://www.lostateminor.com/2013/05/16/grungy-illustrations-by-norma-nardi>
- Hong, M. K. (1999). *A study on the coordination of pattern design by max ernst's coll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ahn, M. (2008). *21세기 다시 읽는 프로이트 심리학* [Freud's psychology reading again in the 21st century]. Seoul: Hagisa.
- Kim, S. Y. (2000). *A study of automatism's expressions applied on textile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Y. Y. (2009). *A study on automatism expression in painting technics: With researcher's 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Laura Laine. (n.d.). *LAURA LAINE*. Retrieved August 20, 2016, from <http://lauralaine.net/portfolio/illustrations/#>
- Lee, K. R. (2016). *미술철학사 2: 재현과 추상 독일 표현주의에서 초현실주의까지* [Art history 2: Reproduction and abstraction, from German expressionism to surrealism]. Paju: Mimesis.
- Leroy, C. K. (2008). *초현실주의* [Surrealism] (Kim, Y. S., Trans.). Seoul: Maloniebook.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Lim, D. B. (2013). *한권으로 보는 서양미술사 101 장면: 원시 미술에서 현대의 새로운 미술까지* [Western art history 101 scenes in one volume: From primitive art to modern art]. Paju: Mijinsa.
- Min, J. S. (2003). *A study on expressive style of fashion illustration appeared in the fashion magazine: Based on vogues published in Korea and US from 1996 to 2003*.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No Title. (n.d.). *François Berthoud 2*. Retrieved August 20, 2016, from <http://www.francoisberthoud.com>
- Park, J. B. (2013). *A study on textile design that has applied expressive characteristic of automatism: With focused on clo-3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Park, J. E. (2008). *Study on space adapted to the automat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Park, T. H. (1991). *A study of fortuity appeared in modern art: Focused on abstract expressio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Shin, S. J. (2015). *A study of contemporary sculpture articulated by automatism draw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 SHOWstudio. (n.d.). *TOBIE GIDDIO*. Retrieved August 12, 2016, from <http://www.tobiegiddio.com/portfolio/category/work>
- Smith, E. L. (1977). *Art now*. New York: William Morrow & Company.
- Strickland, C. (2000). *클릭, 서양미술사: 동굴벽화에서 비디오 아트까지* [Click, western art history: From cave paintings to video art] (Kim, H. K., Trans.). Seoul: Yekyo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Visco ‘Delicate Shades’ campaign, 2011. (n.d.). *SABINEpieper*. Retrieved August 12, 2016, from <http://sabinepieper.com/portfolio>

## Fashion Illustration Applying Automatism Characteristics

Kim, So Hyun • Lee, Youn Hee<sup>+</sup>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automatism in fashion through modern fashion illustration, which has been studied only in the field of painting or sculpture until now. It needs to offer the value as new visual art and carry out research on the works of artistic fashion illustration using automatism. Next, it is to seek the possibility and value of delivering more effective and persuasive fashion images to modern artists and modern people. First I had to look into the core of automatism. Then I looked into what automatism was like in modern fashion illustration, using several steps. First, Looking at the trend of fashion illustration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of automatism. Second, A survey was given out to expert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automatism. Third, Once the first 1,129 works were collected from domestic and foreign artists, the second survey was carried out to a group of experts. Forth, The 287 photos selected by more than half of the group were used for analysis. The distribution in each expressive characteristic showed that the improvisation of action painting(28%)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fantasy of collage(27.7%), the unconsciousness of free dessin(27%), the multiplicity of decalcomanie(9.6%), the space of assemblage(4.7%), and the contingency of frottage(3%). Fifth, The survey resulted in combining and analyzing 287 photos involving the usage of automatism.

Key words : automatism, fashion illustration, unconsciousness, improvisation, contingency

